유 근 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중등미술교육에서 인물화를 활용한 패러디 지도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전 효 진

중등미술교육에서 인물화를 활용한 패러디 지도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유 근 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전 효 진

인 준 서

전효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형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예술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현재의 교육 과정은 미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표현과 감상 영역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오늘날 미술의 흐름은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미술의 영역은 장르와 양식, 매체를 뛰어넘어 상호간에 차용, 혼용하면서 다양한 양상들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 장르의 주요한 부분인 인물화 감상을 통해 작품에 대한 미적 가치와 감상에 대한 흥미를 신장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표현 영역은 패러디라는 장르를 도입함으로써 인물화감상과 함께 자유로운 패러디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기존 미술교육에서 강조되었던 독창성이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기성의 것을 차용, 변형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보았다.

이로써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던 학생들에게 잘 그려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미술교과의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그림의 선정은 미술교과서를 최대한잘 활용할 수 있게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위주로 하였고, 연구내용은 문헌 및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중등미술에서 인물화를 이용하여 패러디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미술 교육이 더 이상의 표현기능만을 강조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그 결과 인성과 정서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교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인물화 감상수업과 패러디를 연계한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회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인물화를 이해하고 현대 미술의 한 부분인 패러디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으면서 비판적인 고등사고력과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 의사소통을 기를 수 있는 수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Ⅰ.서론 ····· 1

Ⅱ.인물화의 이해 ····· 3
1.인물화의 일반적 특징 ····· 3
2.동양의 인물화 ····· 5
3.서양의 인물화 ····· 11
4.교과서에 나타난 인물화 작품분석 ····· 15

Ⅲ.패러디의 이해 ····· 28
1.패러디의 개념과 역사 ····· 28
2.모방의 개념과 통일성 ····· 30
3.모방과 복제 그리고 창조 ····· 32
4.현대 미술의 모방과 차용 ····· 33
5.현대의 패러디와 범주 ····· 34

Ⅳ.패러디가 가지는 교육성 ····· 36
1.교과서에 나타난 패러디 작품 분석 ····· 37
2.미술 수업에서 인물화 패러디 수업 지도 방안 ····· 43

Ⅴ.결론 ····· 51

참고 문헌
참고 그림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1-1) 교과서 인물화 작품-교학사 ····· 16
표1-2) 교과서 인물화 작품-교학연구사 ····· 17
표1-3) 교과서 인물화 작품-금성출판사 ····· 19
표1-4) 교과서 인물화 작품-대한교과서 ····· 20
표1-5) 교과서 인물화 작품-두산 ····· 21
표1-6) 교과서 인물화 작품-삶과 꿈 ····· 22
표1-7) 교과서 인물화 작품-시공사 ····· 24
표1-8) 교과서 인물화 작품-천재교육 ····· 25
표2-1) 교과서 패러디 작품-교학사 ····· 37
표2-2) 교과서 패러디 작품-교학연구사 ····· 37
표2-3) 교과서 패러디 작품-금성출판사 ····· 38
표2-4) 교과서 패러디 작품-천재교육 ····· 38
표2-5) 교과서 패러디 작품-시공사 ····· 39

그 림 목 차

그림1-1) 윤두서, 자화상(지본담채/38.5×20.5cm)

그림1-2) 김명국, 달마도(지본수묵/82.3×57.5cm)

그림1-3) 김득신, 파적도(지본담채/22.5×27.1cm)

그림1-4) 신윤복, 미인도(지본담채/113.9×45.6cm)

그림1-5) 서구방,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227.9×125.8cm)

그림2-1) 렘브란트, 자화상(캔버스에 유채/59×51cm)

그림2-2) 밀레, 이삭줍기(캔버스에 유채/83.82×111.76cm)

그림2-3) 레오나르도다빈치, 모나리자(패널화/77×53cm)

그림2-4)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예수(목판에 템페라/81.5×49cm)

그림3-1) 뒤샹, LHOOQ(모사품위에 크레용/197×124cm)

그림3-2) 벨라스케스,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캔버스에 유채/140×120cm)

그림3-3) 베이컨,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캔버스에 유채/153×118cm)

그림3-4) 렘브란트, 놀란 눈의 자화상(에칭/5.1×4.6cm)

그림3-5) 모리무라 야스마사, 표정연습(종이에 연필, 사진합성/25×20cm)

그림3-6) 이노을, 몽유도원도(캔버스에 유채/73×93cm)

그림3-7) 박민하, 다섯화가의 방(사진합성, 유화 혼합재료/39×51cm)

Ⅰ.서 론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한 문화현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대의 거울이며 사회비판기능을 이용하여 부조리에 항거하고 시대를 선도하며 소외받는 대중을 위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미술은 문화예술의 한 형식으로 한 시대의 정신과 미의식을 드러내면서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대와 무관할 수 없으며, 시대양식과 변화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작품을 통하여 그 시대정신이나 사상,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무엇보다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물화이다. 인물화는 미술의 시작을 함께했고 무엇보다 인물(인간)을 표현하며 그 시대의 모습이나 생활상, 정신을 담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술을 말할 때, 어제의 미술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을 말할 때, 미국이나 유럽의 미술을 배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동서양 인물화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과거와 현재 또한 어우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사고의 폭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미술, 미술교육의 흐름은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미술의 영역은 장르와 양식, 매체를 뛰어넘어 상호간에 차용·혼용하면서 다양한 양상들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전달 매체와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발전으로 지역적 경계가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외국의 미술문화가 그대로 우리

나라에 유입되면서 훨씬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래서 현대작가들은 과거 미술로부터의 차용, 복사, 패러디 등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순수미술 상업미술로 구분되는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상호 결합하며 독특한 양식들을 재현해내고 합성해낸다. 특히, 하이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작품들을 제작한다. 우리의 현재 생활도 다양한 문화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 고민들도 다르다. 그러므로 미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은 미술 교육의 감상과 표현에 관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의 시작과 함께한 인물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화 도판을 참고한다.

둘째, 미술에서의 패러디 개념과 역사성을 알아보고 교과서 내용과 함께 패러디의 교육적 의미도 살펴본다.

셋째, 고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인물화를 활용한 패러디 수업방안'에 대한 수업 모델을 고안한다.

본 논문은 인물화 감상수업과 연계한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회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인물화를 이해하고 현대 미술의 한 부분인 패러디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으면서 비판적 고등사고력과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 의사소통을 기를 수 있는 수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인물화의 이해

1.인물화의 일반적 특징

인물화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의 총칭으로써 인물의 표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시대부터 회화의 중요한 소재였다. 그래서 회화사의 발전이나 전개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풍경화, 풍속화 등이 독립된 회화의 장르로 발전되기 이전에 가령 약간의 예외는 있다고 해도 회화는 곧 인물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인물화에는 특정 개인을 개체적 특징에 의해 작성하는 초상화, 또는 그와 같은 개인의 모임을 그린 집단 초상화가 있다. 특정사건을 그린 역사화, 인물의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그린 나체화,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 등도 넓은 의미로는 인물화에 포함된다. 또한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부위에 따라 얼굴 부분을 그린 마스크, 머리 부분만 그린 두상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린 흉상화, 허리 위 상반신을 그린 반신상화, 몸 전체를 그린 전신상화로 나눌 수 있고, 자세에 따라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좌상화, 서있는 모습을 그린 입상화,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와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초상화는 인물화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자태를 그린 그림으로 그려지는 당사자를 모델로 해서 본대로 직접 그려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상의 인물과 같

이 미술가 자신이 모르는 인물을 화가의 본성에 의한 자유로운 구상에 따라 그리는 관념적, 상상적 초상화라는 것도 있다.

자화상은 자아 표현을 목적으로 했으며 화가가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린 초상화로서 배경에 그려진 가구, 집물 등을 확인 가능함과 동시에 당시의 화가들의 생활환경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역사화는 역사상의 정경 또는 인물 등을 그린 그림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설적, 문학적 내용의 그림도 포함된다.

풍속화는 일정한 사회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전형적인 일단을 그린 회화이다. 일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라 농민적, 서민적, 귀족적 등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내용의 여하에 따라서는 종교화 또는 역사화 등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주제를 풍속화 스타일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모습을 희화한 풍자화도 있는데 이것은 후에 캐리커쳐로 발전하게 된다.

인물화는 인류의 초창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의 발달로 사실적 초상화는 쇠퇴하였으며 현대의 인물화는 주관적이고 개성적 해석의 표현이 특징이다.

2.동양의 인물화

동양의 인물화는 남북조 시대 고개지가 창안한 전신사조(傳信寫照)의 개념이 주축이 된다. 인물을 그릴 때 외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면의 인격을 드러냄을 뜻하는 전신은 동양 인물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인물 내면을 드러내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눈의 표현'으로, 옷 주름 등은 철선묘[1], 감필법[2] 등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특히 눈의 표현만큼은 공필법[3]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우리나라 인물화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초상화이다. 우리나라의 초상화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실제 유물은 고구려 고분의 묘주 초상들이며 고려시대에 들어서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초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는데, 유교를 국시로 삼아 조상숭배의 일환으로 가묘(家廟)와 영당(影堂)이 많이 건립되고 스승을 섬기는 정신에서 서원들이 도처에 생겨 그 곳에 안치할 초상화를 많이 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룩된 초상화는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동양삼국(東洋三國) 중 제일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피사인물을 닮게 그리는 사실적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물이 지니고 있는 성격, 교양, 학문 등을 얼굴에 배어나도록 그리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경지를 빼어나게 구현하였기 때문이다.[4]

옛날 우리나라 화가들은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

1) 굵고 가는데가 없이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꼿꼿하고 곧은 필선. 매우 딱딱하고 예리하여 철사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데, 붓을 세워 강하게 베풀고 선이 길다.

2) 필선의 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선으로써 대상의 정수를 자유분방하고도 재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묘사한 기법이다.

3) 표현하려는 대상물을 어느 한구석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리는 기법이다.

4) 新版한국미술사, 김원용, 안휘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301~302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초상화를 그렸다. 화가들은 초상화에 인물의 정신(영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려는 인물의 주변 환경까지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며 생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뜻과 생각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왕의 초상화를 그릴 때에는 몇 개월 동안이나 왕의 모습을 문틈으로 관찰하고 왕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사람의 정신은 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가장 좋은 날과 좋은 시간을 정해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왕의 눈에 점을 찍었다고 한다.[5] 그래서 자화상만큼 시각적 긴장감과 생동감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삼았고, 유교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한 초상화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우리나라의 화가들이 제작한 전신의 기운이 넘치는 초상화 작품들을 보면, 정성과 더불어 심오한 사유의 공간이 연출됨을 볼 수 있다.

동양 초상화에서 언급되는 전신이나 정신의 중요성은 대상이 지닌 품격을 그려내야만 한다는 범주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며, 작품에 묘사된 인물은 그 인물을 둘러싼 인간 결합관계로부터 엉킨 것을 결코 풀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화의 경우 역시 풍속화적인 주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고려 때는 상당히 위축되지만 불화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이미 고대로부터 조선 초,중기에도 다루어졌으나 18세기에 이르러서 서민 문화가 성장하여가던 때로 실사구시를 부르짖던 실학이 태동하여 서민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가고 문예부흥의

5) 전성수 외 3인, 함께 배우는 우리 미술:한국미술에 꼭꼭 숨어있는 창의력 발굴하기. 예경. 2003, p.22~23

욕구가 있었던 때라, 단순히 생활모습의 표현을 넘어서 예술적 경지로까지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히 높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전반기에 윤두서(尹斗緖, 1668-1715, 조선) 등과 같은 선비화가들로 시작한 풍속화는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김홍도(1754-1806 이후), 신윤복(申潤福, 1758-1813 이후, 조선), 김득신(金得臣, 1604-1684, 조선) 등 직업화가들에 의해 절정을 이루면서 묘사된 장면도 다양해졌다. 풍속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의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식사, 각종 놀이문화를 연구하는 데 일차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풍속화도 쇠퇴한다. 추사가 등장하면서 문인화가 크게 번성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풍속화를 서민한테로 확산시켜 판화를 찍어 대량 보급하고 그것이 일본화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까지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다.[6)]

가.동양 인물화 감상

그림1-1)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 1668-1715, 조선)의
자화상(38.5×20.5cm, 17세기 후반, 지본담채)

윤두서가 중년 이후에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자화상>은 그 대담한 얼굴의 배치법이나 강렬한 표현성이 현대적인 미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혁신적이다. 다른 초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얼굴을 화면에 가득 차게 그린 것이라든가, 좌우 대칭적인 수염의 형상

6) 김만희, 우리 풍속화 백가지, 현암사, 2001, p.9

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심령적분위기, 얼굴의 둥근 윤곽선을 따라 섬세하게 마치 빛살이 퍼져나가듯 그려진 수염은 기묘하게도 인물의 영적기운을 사방에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영적 기운의 핵심은 강렬한 눈빛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뚫어질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 속의 얼굴이 지닌 강렬한 눈동자는 영혼의 힘을 눈에서 얼굴로, 그리고 얼굴에서 수염을 통해 외부로 내뿜고 있는 것이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신비스런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는 자화상이다.[7)]

수염은 공필법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얼굴 피부의 표현은 육리문 기법[8)]을 취하여 더욱 사실적이다.

그림1-2)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 1600-1662이후, 조선)의
달마도(82.3×57.5cm, 지본수묵)

김명국의 달마도는 선종의 시조인 달마대사를 그린 선종화로서, 두포와 옷주름에 나타난 극히 함축적이고 생략된 강하면서도 속도감이 있는 거친 먹선으로 인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단순화하여 그려낸 것이다. 얼굴 부분의 담묵의 가는 필선은 달마의 내면세계를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재빠른 필선의 속도에서 작가의 활기차고 호방한 기질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림1-3) 김득신(金得臣, 1604-1684, 조선)의
파적도(22.5×27.1cm, 18세기, 지본담채)

---

7) 임두빈, 한국미술사101장면, 가람기획, 1998, p.274

8) 안면을 그릴 때, 입체감을 위해 근육의 결에 따른 피부방향으로 잔 붓질을 하는 음영표현.

봄날 오후쯤에 한가로이 마루에서 담소를 나누던 부부가 암탉의 울음소리와 병아리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쳐다보자 이미 도둑고양이는 병아리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달아나고 있다. 고양이의 표정이라든지 부부의 표정과 동세가 재미가 있어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감돈다.

그림1-4) 혜원(惠圓)신윤복(申潤福, 1758-?, 조선)의
미인도(113.9×45.6cm, 조선후기, 혜원풍속화첩, 지본담채)

초상 기법으로 그린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인도로 혜원의 대표작이며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걸작으로 손꼽힌다. 크게 틀어올린 가체(여인의 장식용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한 머리 장식에 노리개가 달린 삼회장저고리, 옥색치마로 성장을 한 여인을 그린 것인데 시원한 이마에 가느다란 눈썹, 생각에 잠긴 듯한 조용한 눈빛, 도톰한 붉은 입술에 하이얀 살결은 영락없는 전형적인 한국의 미인상이다.

신윤복의 <미인도>에 그려진 풍성한 가체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멋을 내기위해 유행시켰던 값비싼 가발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여인들의 유행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1-5) 서구방(徐九方, 고려)의
수월관음도(227.9×125.8㎝, 1323, 비단에 채색)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도>는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전체 분위기가 매우 화려하면서도 결코 들뜨거나 속되지 않고 차분하게 내면화되어 기품을 간직하고 있다. 금니와 은니의 적당한 사용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살갗이 드러나게 흘러내리는 투명한 옷자락 사이로 관음보살의 자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럽게 왼쪽 다리를 올리고 유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문양 하나하나에 쏟아 부은 정교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나.동양 회화의 특징

동양에서는 그림이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분히 사의적(寫意的)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화가의 사상이나 철학 등의 내면세계를 그림이라고 하는 수단을 빌어 표출하려 하였다.[9)]

회화의 주요 재료는 종이와 먹이다. 동양의 종이는 먹이 지나간 자리를 곧바로 흡수해 버려 단순히 먹이나 색채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와 일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빛과 어두움'의 균형으로 밝고 어두움은 그림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화와 리듬의 필요에 의존하여 생겨난 것이었다.

그림의 표현에 있어서는 먹으로 그릴 경우에 한 번에 붓질로 그려야 한다는 일필휘지(一筆揮之)가 강조되었다. 먹과 붓으로 그릴 경우에 넓게 칠하는 작업보다는 선으로 가늘게 그리는 작업이 훨씬 쉬우므로 선을 주로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여백의 아름다움을 살렸으며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

9)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12-14)

마지막으로 동양에서는 생동적 정신의 공명(共鳴) 및 생명의 운동을 강조하여 화육법[10]이 고안되었다. 물론 이화육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위치를 점해왔던 것은 기운생동인데 기운생동의 힘을 빌어 화가는 우주적인 힘과 결합하면서 물질적 형식에 생명, 품격, 의미를 부여하는 우주적, 정신적 힘을 구하고자 했다.

3.서양의 인물화

동양의 인물화가 그림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찾았다면, 서양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광선에 의한 명암, 즉 음영을 기초로 하여 부피와 양과 질의 입체감을 내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다.

원시시대에는 기호화된 인체표현이 나타나고, 이집트에서는 다양한 시점에 의한 정면도와 측면도의 결합이 보인다. 중세에는 인물화가 평면적, 상징적이었다면 르네상스부터 19세기는 매우 사실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서양에서는 대상을 형상화하되 형상화 과정의 시각적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식이나 기록의 목적으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얼마나 똑같아 재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로마 신화나 종교화, 귀족들의 초상화 등이 서양 회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양 회화의 역사 속

10) 남제(南齊)의 사혁(謝赫)이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화육법<①기운생동(氣韻生動:생명력, 감정 표현), ②골법용필(骨法用筆: 필법), ③응물상형(應物象形:소묘), ④수류부채(隨類賦彩:색채·농담), ⑤경영위치(經營位置:구도·구성), ⑥전이모사(傳移模寫:표현)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기운·골법·응물이 중요시되며 특히 기운은 회화의 이상(理想) 또는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을 언급하였다.

에는 인물화가 회화의 주된 표현으로 등장하며, 명암법에 의한 입체 표현을 통해 대상의 실재감에 가까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풍속화는 고대의 미술품 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폼페이의 벽화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중세시대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예술 표현의 대상으로는 취급되지 않았으므로 풍속화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풍속화는 생겨나지 않았다. 유럽 미술에 있어서 풍속화식의 묘사가 제차 나타나게 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로서 숀가우어 등의 판화에서 이를 찾아볼 수 가 있다.

자화상은 고대 및 중세에는 극히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화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15세기 즉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하여 일반적으로 인물의 묘사가 사실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주로 종교화나 전설화 따위의 비교적 넓은 화면 한 구석에 작가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첨가해서 그려 넣고 있었다. 전성기 르네상스가 되자 예술가의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작가 자신만을 표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자화상도 그려지게 되었다. 17세기가 되자 자화상은 회화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대부분의 화가가 자화상을 남겼다.

가.서양 인물화 감상

그림2-1)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의 자화상 (59×51cm, 1669, 캔버스에 유채)

약 40여년의 기간 동안 렘브란트가 남긴 자화상은 100여점이다. 그의 자화상은 젊은 시절부터(23세 때 처음 그림)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려졌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년에는 모피와 금으로 둘러싼 부유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후기의 초상화는 명암보다는 내면세계의 표현에 집중해서 그렸다.

렘브란트는 초상화에 뛰어났는데 명암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분위기와 성격,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명암대조법[11] 사용에 있어서 달인이었다.

그림2-2) 밀레(Jean Francois Millet, 1814-1875)의
이삭줍기(83.82×111.76cm, 1857, 캔버스에 유채)

세 명의 농촌 아낙네들이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고, 멀리서는 수확을 마친 일꾼들이 많은 양의 농작물을 싣고 있다. 황금빛 광선이 인물에 숭고한 위엄을 부여한다. 이 작품은 빈곤한 농민 계급에 대한 혹독한 사회적 비평을 담고 있다. 밀레는 대지와 농촌을 사랑했고, 농민들의 모습을 깊은 종교적 감정으로 응시하고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들에는 대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따뜻한 경건함이 배어 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붓놀림은 매끄럽거나 거칠지 않으면서 소박하고 중후한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다.[12] 그래서 서민들의 모습이나 그 숨결이 밀레의 손끝을 지나 자연스럽게 감상자들에게

11) 안개와 같이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옮아가도록 하는 명암법.

12) 임두빈, 서양미술사이야기, 가람기획, 2003, p,301~303

전해지는 듯하다.

그림2-3) 레오나르도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모나리자(77×53cm, 1503-1506, 목판에 유채)

이 작품은 처음부터 눈썹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넓은 이마가 미인의 전형으로 여겨져 여성들 사이에 눈썹을 뽑아버리는 일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소실점이 있는 원근법, 명암대조법에 의한 입체감 표현이 돋보인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에게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여 모나리자의 수수께끼로써 오늘날도 적지 않은 문학적 관심거리이고, 이 그림만큼 친근감을 주면서 많은 문제를 제시하는 작품도 드물다. 미술사상 매우 유명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차용을 통해 활발하게 재생산되는 그림이다.

그림2-4)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예수
(81.5×49cm, 1280년 경, 목판에 템페라)

천사들의 보위를 받으며 옥좌에 앉아 있는 성모와 아기예수를 그린 제단화는 종교적 명상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되었다. 옷 주름이 몸 전체를 감싸고 팔꿈치와 무릎에서 방사선처럼 퍼져 나가는 방식이나 그림자가 지게 하여 얼굴과 손의 입체감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성모의 옥좌부분의 묘사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시대의 미술과 연관이 있다.

나.서양 회화의 특징

서양회화는 외계의 대상을 객관화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대상을 주체에 의해 분석화고 재구성하는데 주력하여 시각적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회화의 주요 재료는 캔버스에 유화물감이었고, 캔버스에 그릴 경우 계속 덧칠하여 그림을 고칠 수 있으므로 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었다. 캔버스는 종이가 안료를 쌓게 하는 하나의 바탕으로서 재료적 의미를 지니며 그림을 일종의 색층 구조로 파악하였다.

선보다는 명암이나 색이 강조되었고, 바탕을 채워 화면을 꽉차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근법과 명암법을 고안해 내었다. 서양의 그림자를 수단으로 해서 발전되었던 것은 원근법 및 '입체'의 재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서양의 명암법은 '삼차원적인 것' 조각적인 요소를 평면 회화에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양 회화에서는 뚜렷한 입체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색과 공간의 결합을 볼 수 있으며 화가의 창조적 독창성을 강조했다.[13)]

4.교과서에 나타난 인물화 작품 분석

우리나라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로 미술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으로 나누

13)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재원. 1999. p,228-230.

고 있다.

학생작품을 제외한 작품으로 인물이 포함된 모든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학습목표, 작가 및 작품명으로 표기하였다.

고등학교 8종 교과서 모두를 참고하였다

표1-1) 교과서 인물화 작품-교학사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미적체험	생활 속의 미술	생활 속에서 미술의 활용성을 찾아보고 토론해 본다.	■담장의 벽화/김광한/벽화/서울 대학로
	선의 아름다움	동서양의 미술품에서 선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미인도/비단에 채색/조선 ■욥/뮈샤/석판화
표현	표현의 즐거움	주제에 알맞은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자유롭고 개성 있게 나타낸다.	■환상/임직순/유채 ■투사/쉴레/연필, 과슈 ■지네브라 데 벤치/레오나르도 다빈치/유채
	소묘	소묘의 종류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선의 느낌을 살려 대상을 표현한다.	■세 사람/이중섭/연필 ■어머니의 초상/쇠라/콩테, 크레용 ■달마도/김명국/수묵//조선
	거리감과 공간감	원근 표현의 방법을 알고 다양하게 나타낸다.	■숲 속의 사냥/우첼로/템페라, 유채 ■초원의 언덕길/르누아르/유채
	생활 속에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특징과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아버지의 정원/박형진/아크릴물감 ■시인/보테로/유채 ■결혼 기념일/그린/유채
	판을 이용한 표현	여러 가지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가로수/정환선/에칭
	수묵화와 채색화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을 살려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종이 부인/정종미/장지, 콩즙, 염료, 운모, 풀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인가?	착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한다.	■모자상/김재홍/아크릴물감 ■해질 무렵 마그리트와 다리를 도는 브뤼겔/더 메이/아크릴 물감 ■봄-대기/아르침볼도/유채 ■높은 것과 낮은 것/엣셔/리소그래피
	심상의 세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샤렌의 마을/델보/유채 ■초현실적인 아파트로 사용되는 메 웨스트의 얼굴/달리/신문지, 과슈
	미술과 패션의	패션에 대한 감각을 길러 생활에 활용한다.	■젊은 여인의 초상/폴라이우올로/목판, 템페라

	만남		
감상	미술 문화 유산의 이해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시대별 · 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고사관수도/강희안/종이에 수묵/조선 ■기려도/함윤덕/비단에 수묵 담채/16세기 ■주막/김홍도/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여사잠도/고개지/비단에 채색/중국 동진 ■아잔타 제17굴 입구 정면 벽화/작자미상/인도 ■새 사냥/작자 미상/이집트 ■테오도라의 초상/작자 미상/모자이크/라벤나 성 비탈레 성당 ■봄/보티첼리/템페라 ■델포이무녀/미켈란젤로/프레스코 ■모자를 쓴 여인/루벤스/유채 ■오달리스크/앵그르/유채 ■폐허에 서 있는 죽어 가는 그리스/들라쿠르아/유채 ■갓난 송아지/밀레/유채 ■글라디올러스/모네/유채 ■검은 배경의 독서하는 여자/마티스/유채 ■꽃을 든 두 여인/레제/유채 ■스베스트 거리/위트릴로/유채 ■생일/샤갈/유채 ■여인/데 쿠닝/유채

표1-2) 교과서 인물화 작품-교학연구사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미적체험	예술가의 눈으로	미술 작품은 작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작가가 살았던 시대성과 민족성을 반영함을 이해한다.	■타작/김홍도/수묵담채/조선 ■무무도/신윤복/수묵담채/조선 ■목화를 나르는 사람/리베라/맨소나이트,유채,템페라/멕시코 ■UR-권씨/이종구/아크릴,콜라주/한국 ■어린이들의 유희/브뢰겔/유채/플랑드르 ■건축 공사장의 인부들/레제/유채/프랑스
표현	눈길의 교차	관찰 표현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원숭이와 함께 있는 자화상/칼로/유채/멕시코 ■돌리의 초상화/반 동겐/유채/네덜란드→프 ■앨브르/로랑생/석판화/프 ■베티/리히터/유채/독 ■자화상/베이컨/유채/영 ■키키/크로스/유채/러시아 ■조는 아이/김종태/유채/한국 ■레오니드 안드레예프의 초상화/레핀/유채

			/러시아 ■4개의 기수 스케치/드가/유채/프 ■남년 한쌍-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위한 습작/쇠라/크레용,콩테/프
	동양의 마음	동양화의 특성과 정신을 이해하고 표현과 감상에 활용한다.	■수월관음도/작자미상/비단채색/419.5×254.2cm/고려
	아름다운 일상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을 감상하고 그 주제를 이해한다.	■무용도/벽화/고구려 ■삶은 어딘가 다른 곳에/황주리/아크릴/한국 ■나의 부모님/호크니/아크릴/영 ■뱃놀이 일행의 식사/르누아르/유채/프 ■느낌/김호석/수묵담채/한국 ■정청/김기창/채색/한국
	꿈과 환영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잠자는 보헤미아 여인/루소/유채/프 ■가족/이만익/실크스크린/한국 ■서커스/샤갈/석판/러시아→프
	인간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알고 우리 생활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한다.	■리비에 양/앵그르/유채/100×70cm/프
감상	새로운 모색	현대미술의 경향을 이해한다.	■비너스의탄생/보티첼리/템페라/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세부/워홀/실크스크린/미
	미술과 문화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한다.	■나무와 두 여인/박수근/유채/한국 ■압사라 벽화/스리랑카 ■수변의 수렴/회칠벽에 채색/이집트 ■이콘/유리모자이크/터키 ■크리스트를 애도함/조토/프레스코/이탈리아 ■아테네학당/라파엘로/프레스코/이탈리아 ■아르놀피니의결혼/반에이크/유채/플랑드르 ■엠마우스에서의 만찬/카라밧지오/유채/이탈리아 ■궁정의시녀들/벨라스케스/유채/에스파냐 ■호라티우스의맹세/다비드/유채/프 ■메뒤스호의뗏목/제리코/유채프 ■크리스팽과 스카팽/도미에/유채/프 ■해후/쿠르베/유채/프 ■이삭줍기/밀레/유채/프 ■파라솔의 여인/시냐크/유채/프 ■자화상/고흐/유채/네덜란드 ■마리아를 경배함/고갱/유채/프랑스 ■아비뇽의 처녀들/피카소/유채/에스파냐 ■검은색의 여인들/베레프킨/구아슈/독일

표1-3) 교과서 인물화 작품-금성출판사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미적체험	미술과 문화	미술이 시대나 민족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사상과 종교,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3 · 1시위/강요배/종이 목탄
표현	눈으로 이해한다.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헬가/와이어스/템페라 ■자화상/윤두서/종이에 담채/조선 ■阿Q/장자오허/수묵 담채/중국 ■그때/김호석/수묵 담채
	마음으로 이해한다.	추억, 경험, 이야기, 감정 등의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포도주 잔의 이중 초상/샤갈/유채
	원근법이 사라지다.	추상 회화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타이티 풍경/고갱/유채
	삶의 모습을 그린다.	풍속도를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씨름/김홍도/수묵 담채/조선 ■무엇이 오늘날 가정을 색다르고 매력 있게 만드는가?/해밀턴/콜라주 ■무용도/작가 미상/무용총 벽화/고구려
	판으로 표현한다.	판화의 기본 원리를 알고, 여러 가지 파노하의 특징을 이해한다.	■마술-강박 관념/김소영/목판 ■무제/행/동판/호주 ■1995년 8월 15일이후/장화진/실크스크린 ■재즈 모드/유희경/석판
	소묘로 표현한다.	소묘를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본다.	■'예수의 부활'을 위한습작/라파엘로/연필 ■화가/피카소/수채
	시간과 움직임을 보여 준다.	미술에서 시간을 표현한 작품을 이해한다.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뒤샹/유채
	사진으로 보여 준다.	사진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한다.	■사진/호크니/사진
감상	미술과 시대 정신	시대에 따라서 미술가들의 정신이 작품에 반영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연소답청/신윤복/종이에 채색/조선 ■조선 총독부/최진욱/아크릴/한국 ■돌 깨는 사람들/쿠르베/유채 ■교황 인노켄티우스 X세의 초상/벨라스케스/유채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X세의 초상' 습작/베이컨
	미술 문화의 유산-영혼을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아비뇽의 피에타/작가 미상/패널에 유채/1470년

	위한 미술		
	격동기의 미술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적인 격동기의 미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시의 미술이 미술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한다.	■작품/이쾌대/유채 ■1808년 5월 3일/고야/유채 ■마라의 죽음/다비드/유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쿠르아/유채 ■게르니카/피카소/유채
	미술과 과학	르네상스 이래 과학이 미술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뒷모습/쇠라/유채 ■팔, 어깨, 다리 해부도/레오나르도 다 빈치/펜, 잉크

표1-4) 교과서 인물화 작품-대한교과서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표현	대상의 관찰과 표현	대상을 관찰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인물 크로키/김기창/붓/한국 ■자화상/윤두서/수묵담채/조선 ■자화상/고흐/유채 ■자화상/최욱경/파스텔 ■자화상/렘브란트/유채 ■자화상/황주리/아크릴 ■자화상/모딜리아니/유채 ■자화상/베이컨/유채 ■군상/송영방/수묵담채/한국 ■길레언니/천경자/종이에 채색/한국
	판화의 세계	판화의 종류와 표현기법을 알고 판재의 효과를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물랭루즈 · 라굴뤼/로트렉/석판화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	마음속의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파적/김득신/수묵담채/조선 ■건설 인부들/레제/유채/프 ■나룻배/장욱진/유채/한국 ■시골의 결혼잔치/브뢰겔/유채/플랑드르 ■잠자는 집시/루소/유채/프
감상	미술품 감상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절규/뭉크/유채/노르웨이
	미술 문화 유산 이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미인도/작자미상/수묵담채/조선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 예수/목판에 템페라 ■미륵하생경 변상도/비단에 채색/고려 ■고사관수도/강희안/수묵/조선 ■달마도/김명국/수묵/조선 ■기와이기/김홍도/수묵담채/조선

			■이재초상/작자미상/채색/조선 ■신부성적/김은호/수묵채색/한국 ■자화상/고희동/유채/한국 ■창신동집/박수근/유채/한국 ■목욕하는 여인/앵그르/유채/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쿠르아/유채/프 ■이삭줍기/밀레/유채/1857/프 ■안녕하십니까? 쿠르베씨/쿠르베/유채/프 ■피아노 치는 소녀들/르누아르/유채/프 ■피리 부는 소년/마네/유채/프 ■그랑자트섬의 일요일오후/쇠라/유채/프 ■부르타뉴 여인들/고갱/유채/프 ■파란 풍경 속의 여인/샤갈/유채/러→프 ■마릴린 먼로/워홀/실크스크린/미

표1-5) 교과서 인물화 작품-두산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표현	자연 관찰과 표현	대상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자화상/레오나르도다빈치/붉은초크/이탈리아
	느낌과 상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절규/뭉크/유채/노르웨이
	전통회화	수묵화와 채색화의 특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볼티모어에서 온 여인/천경자/진채/한국
	판화의 종류	판의 형식에 따른 특징과 종류를 알 수 있다.	■해 돋는 나라로/이만익/목판화/한국
감상	미술 분화의 이해	미술품을 감상하여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양식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옥좌의 성모/모자이크/성 아폴리네르 누오보 성당 ■십계를 받는 모세/프레스코/영국 ■수월관음도/비단 채색/고려 ■고사관수도/강희안/수묵/조선 ■나한상/이상좌/수묵/조선 ■모나리자/레오나르도 다빈치/유채/이탈리아 ■아름다움 여정원사/라파엘로/유채/이탈리아 ■자화상/렘브란트/유채/네덜란드 ■이제초상/작자미상/비단 채색/조선 ■파적도/김득신/수묵담채/조선 ■미인도/신윤복/수묵담채/조선 ■샘/앵그르/유채/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쿠르아/

			유채 ■이삭줍기/밀레/유채/프 ■노래하는 피에로/도미에/유채/프 ■파라솔을 든 여인/모네/유채/프 ■자화상/고희동/유채/한국 ■노왕/루오/유채/프 ■두 소녀/마케/유채/독일 ■푸른 얼굴/샤갈/유채/러→프 ■여인1/데쿠닝/유채/네덜란드→미 ■로버트/클로스/유채/미국

표1-6) 교과서 인물화 작품-삶과 꿈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미적체험	환경과 미의식	자연, 사회 황경에 따른 미술품을 찾아 비교하여, 미의식의 다양함과 차이점을 안다.	■논갈이/김홍도/수묵담채/조선
표현	미술과 문화	사회 속에서 미술이 하는 문화적 구실과 기능을 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쇠라/유채/프 ■선교사/놀데/유채/독 ■나폴레옹의 대관식/다비드/유채/프 ■단오풍정/신윤복/수묵담채/조선 ■야외 농민 결혼 축제의 춤/브뢰겔/유채/네덜란드 ■양국랑견/오쿠무라 마사노부/목판/일본
	표현	개성을 살려 표현 의도를 조형적으로 나타낸다.	■젤구질하는 여인/박수근/유채/한국 ■그 신사/와이어스/템페라/미
	발상의 구체화	발상을 구체화하는 소묘의 방법과 모형 제작의 목적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성 있게 구체화한다.	■메뒤스 호의 뗏목/제리코/유채/프 ■어머니의 초상/쇠라/콩테/프 ■다리를 부수는 군인/루벤스/펜/플랑드르
	평면에 표현하기	평면 표현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 재료의 특성을 살려 독창성 있게 표현한다.	■작업장에 있는 성요셉/라투르/유채/프 ■시장사람들/강연균/콩테,수채/한국 ■여가/레제/유채/프 ■스토클렛 프리즈를 위한 작업 계획/클림트/템페라,수채,금은판/오스트리아 ■절규/뭉크/유채/노르웨이 ■푸른누드/마티스/종이오리기/프 ■어머니 초상-요크셔 무어즈 1985년 8월/호크니/사진콜라주/영 ■자화상/윤두서/수묵담채/조선
	인쇄하여 표현하기	판재 활용의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알아,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유랑 악사들/렘브란트/에칭/네덜란드 ■르페브르 위텔 비스켓/뮈샤/석판/체코
	감상	미술품을 감상하며 지역과 시대 및 양식별 특징을 이	■자화상/고희동/유채/한국

		해하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안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알기	우리나라 미술품의 흐름을 알아, 전통미를 느끼고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견한다.	■쇼토쿠태자상/일본 ■양류관음도/비단채색/고려 ■기마도강도/전 이제현/수묵담채/고려 ■고사관수도/강희안/수묵/조선 ■기와이기/김홍도/수묵담채/조선
	동양 미술의 관계 읽기	동양의 미술품을 감상하며 조형미를 느끼고, 우리나라 미술 양식과 관련성을 발견한다.	■아무나 강변의 크리슈나와 라다/라지프트화
	서양 미술의 양식 이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알아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을 안다.	■포도나무/벽화/이집트 ■입맞춤/조토/프레스코/이탈리아 ■전능한 그리스도/모자이크/성마리 성당 ■전증하신 그리스도/프레스코/성클레멘트 성당/에스파냐 ■비너스의 탄생/보티첼리/템페라/이탈리아 ■모나리자/다빈치/유채/이탈리아 ■갈라테아의 승리/라파엘로/프레스코/이탈리아 ■전원의 합주/조르조네/유채/이탈리아 ■눈속의 사냥꾼/브뢰겔/유채/네덜란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엘 그레코/유채/에스파냐 ■톨프박사의 해부학 강의/렘브란트/유채/네덜란드 ■수잔나 푸르망/루벤스/유채 ■화장하는 비너스/부세/유/프 ■1808년 5월 2일/고야/유채/에스파냐 ■오달리스크/앵그르/유채/프 ■사자 사냥/들라쿠르아/유채/프 ■화가의 작업실/쿠르베/유채/프 ■젊은 양치기/밀레/유채/프 ■풀밭위의 식사/마네/유채/프 ■양산을 쓴 여인/시냐크/유채/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고갱/유채/프 ■루마니아풍 블라우스/마티스/유채 ■거리/키르히너/유채/독일 ■아비뇽의 아가씨들/피카소/유채/에스파냐 ■잔 에비테른/도딜리아니/유채/이탈리아

표1-7) 교과서 인물화 작품-시공사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표현	사회를 읽는 눈	우리의 근대사를 조형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통일에 관한 작품을 만들어 본다.	■1808년 5월 3일/고야/유채 ■구두닦이 소년/이수억/유채
	더불어 사는 삶	공공 미술의 개념과 역할을 이래하고 작품을 제작해 본다.	■역사야 놀자/임옥상/지하철에 페인트
	조형 요소와 원리의 창의적인 사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다.	■자화상/척 클로스/유채/
	읽는 그림 보는 그림	미술품 분석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미술품을 감상해 본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얀 반 에이크/패널에 유채
	그림 속의 이야기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그린 작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본다.	■탁족도/전 이경윤/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조어도/정선/종이에 수묵 담채/조선 ■타작/김홍도/종이에 채색/조선 ■달빛 아래 연인/신윤복/종이에 채색/조선 ■수월관음도/김우/비단에 채색/고려 ■성 마태의 소환/카라바조/유채 ■통도사 사명암 감로탱화/작가 미상/비단에 채색
	추상과 상상의 세계	창의적인 생각으로 대상의 특성을 살려 주제를 나타낸다.	■물/아르침볼도/판에 유채
	미술품을 이용한 미술품	기성의 미술 작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미술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표정연습/모리무라 야스마사/종이에 연필, 사진 합성 ■놀란 눈의 자화상/렘브란트/에칭
감상	알고 보고 느끼기	다양한 감상 관점으로 미술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나무와 두 여인/박수근/유채 ■아이들과 물고기와 게/이중섭/먹,수채 ■노점/박래현/종이에 수묵 채색 ■여인도/수산리 고분 벽화/고구려

표1-8) 교과서 인물화 작품-천재교육

영역		학습 목표	참고 작품
표현	표현의 세계	미적 표현의 특질을 여러 형식과 기법을 통해 이해하고, 제나름의 표현법을 개발하는 체험을 한다.	■그 신사/와이어스/템페라미
	소묘와 채화의 방법으로	소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소묘 재료의 활용과 새로운 모색을 통한 기법을 체험한다. 폭 넓은 채화의 특질과 경향성을 살피고 흥겨운 채색 표현을 실험하고 즐길 줄 안다.	■스태머티 가족/앵그르/연필/프 ■앉아 있는 여인/쇠라/콩테/프 ■분홍누드/마티스/색연필/프 ■나한/전 이상좌/붓/조선 ■작은 도시의 사무실/호퍼/유채/미 ■벨라스케스의 이노켄티우스 10세 초상 모작/베이컨/유채/영 ■입맞춤/클림트/유채/오스트리아 ■자화상/고흐/유채/네덜란드 ■통곡하는 여인/피카소/유채/에스파냐 ■로버트/클로스/유채/미 ■황현 초상/채용신/수묵담채/한국 ■야곱과 천사의 싸움/샤갈/스테인드 글라스/러→프 ■백지 위임장/마그리트/유채/벨기에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판화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판화를 할 수 있는 판재의 종류와 기법을 이해하고 실험한다.	■천렵/오윤/고무판,수채/한국 ■마릴린 먼로/워홀/실크스크린/각 미 ■나단의 수영/호크니/포토몽타주/영 ■앤디의 그림작 속 자화상/슈나벨/유채/미
감상	우리나라	우리나라 미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문화적 특질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의 미술 문화는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느낀다.	■주인 초상/안악3호분/고구려 ■쇼토쿠 태자상/일본 ■기마 도강도/전 이제현/수묵담채/고려 ■수월관음도/작자미상/비단에 후채/고려 ■단오풍정/신윤복/수묵담채/조선 ■오륜행실도/작자미상/목판/조선 ■고사관수도/강희안/수묵/조선 ■자화상/고희동/유채/한국 ■전설/장운상/수묵/한국 ■그늘의 노인/장리석/유채/한국
	동양	우리의 환경과 가까운 나라들의 미술 문화 풍토를 이해하여 새로운 미적 감성의 확대와 전망을 가늠한다.	■호반/구로다 세이키/유채/일본 ■왕과 왕비/아잔타석굴/인도
	서양	서양 미술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미술 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어떻게 감응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사자의 서/파피루스/이집트 ■전능자 그리스도/모자이크/성 마리성당 ■전능하신 그리스도/프레스코/성 클레멘트 성당 ■비탄/조토/프레스코/이탈리아 ■봄/보티첼리/템페라/이탈리아

			■모나리자/다빈치/유채/이탈리아 ■성 삼위일체/마사치오/프레스코/이탈리아 ■아르놀피니 부처의 결혼/반 에이크/유채/플랑드르 ■자화상/뒤러/유채/독 ■눈속의 사냥꾼/브뢰겔/유채/네덜란드 ■의자의 성모/라파엘로/유채/이탈리아 ■최후의 만찬/틴토레토/유채/이탈리아 ■유로파의 강탈/티치아노/유채/이탈리아 ■엠마오의 그리스도/카라바지오/유채/이탈리아 ■수잔나 프르망/루벤스/유채/플랑드르 ■야경/렘브란트/유채/네덜란드 ■옷을 입은 마야/고야/유채/에스파냐 ■시녀들/벨라스케스/유채/에스파냐 ■마라의 죽음/다비드/유채/프 ■오달리스크/앵그르/유채/프 ■단테의 작은 배/들라쿠르아/유채/프 ■화가의 작업실/쿠르베/유채/프 ■세사람의 재판관/도미에/연필,펜,담채/프 ■이삭줍기/밀레/유채/프 ■풀밭 위의 식사/마네/유채/프 ■물랭드라갈레트/르누아르/유채/프 ■아스나에르 강에서 멱감기/쇠라/유채/프 ■언제 결혼하나/고갱/유채/프 ■거리/키르히너/유채/독 ■아비뇽의 아가씨들/피카소/유채/에스파냐 ■푸른 무용수/세베리니/유채/이탈리아

이상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인물화를 중심으로 영역별 학습목표와 참고작품을 살펴보았다. 인물화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 인물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비례, 동세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인물의 표정이나 성격을 살려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표현재료의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인물화의 그리기를 통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간

존엄 사상을 가진다.

인물화는 위와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관찰하여 나타내기' 등과 같이 표현영역을 중심으로 볼 수 있었고, 감상역역에서는 미적체험과 표현부분에서 부족했던 인물화와 기타 회화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인물화관련 교과내용은 대부분 관찰하여 표현하기 중심의 학습목표를 설정해 두었다. 이것은 인물화수업을 표현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 미술에서의 인물화는 작가의 감성을 중요시하여 기능보다는 개성과 더불어 감성적 표현이 얼마만큼 묻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미술교과내용은 아직까지 인물화라고 하면 표현기능중심의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참고작품으로 제시된 현대작가의 인물화 그림을 참고하여 여러 방향으로 지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물화수업이 그 동안 얼마나 닮게 그릴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미술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감성을 반영하여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Ⅲ.패러디의 이해

1.패러디의 개념과 역사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탈구심화, 불확실성, 단편화, 복제의 편재 등 세기말적인 문화의 징후를 양산해 내었다. 작가의 산물은 더 이상 고유하고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하나의 '텍스트'에 불과하다.

재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과거의 이미지들을 발굴해 내는 행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제와 형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로 패러디를 확산시켰고, 옛 것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패러디는 표현 양식의 다양성을 낳고, 여러 갈래로 해석됨으로써 다원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합되었다.

패러디는 논자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조롱하다', '희화하다'라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텍스트와 텍스트간의 '반복과 다름'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고전적인 문학, 미술과 같은 범위를 넘어서 대중문화에서도 패러디를 도입하기 시작한 현대의 패러디 이론은 후자의 개념에 더 가깝게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패러디의 형식상의 개념은 미술이나 문학 등의 영역에서 이전의 원작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도시키고 초맥락화하는 통합된 구조적 모방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옥스퍼드 영한 사전에 의한 패러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패러디란 산문이나 운문에서 한 작가나, 한 부류의 작가들이 우습게 보

이려는 방식으로, 특히 우습게 부적절한 주제에 이들을 적용시키면서 모방하는 시구나 구절의 전환으로 이루러진 구성,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하는 것이지만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전환된 모방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내포하고 있듯이 패러디는 원작과는 다른 비평적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모방이 아닌 재창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에서 창조를 목표로 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패러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처음 패러디의 의미는 주로 그 외형과 내용의 불일치에서 익살스러운 효과를 주는 시 또는 그러한 작업으로 그 기원은 7,8세기의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초 시와 운문 등 문학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중심이었다.

패러디는 분명 서구의 개념으로 어디에서 먼저 상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패러디와 유사한 형식은 고대에서부터 있어왔다. 고대에 있어서 패러디는 풍자적인 목적 뿐 아니라 '메타픽션[14]'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비극에 대한 패러디를 주로 의미했다.

현대(후기 르네상스 이후)에 들어 수많은 학자들이 패러디를 정의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노래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전도, 몇 단어를 바꾸어 시를 변화시키는 것, 메타픽션적이고 비판적이고 희극적인 것, 독창성의 결여와 절망의 조소, 유용하고 비판적인 종류의 웃음, 장치들을 노출시키기 위한 수법, 이중의 계획을 가진 것, 이중의 목소리 등 후기 르네상스시대 만으로도 이렇듯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다.

한편 1960년대 이후 후기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패러디는 반해

14) 메타픽션은 픽션과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고 픽션을 하나의 문화적 유물로 보도록 일부러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주위를 끄는 픽션 창작을 가리키는 말이다.

석, 논쟁과 변형, 희극적인 것, 그러나 카니발적이고 진지한 위반, 리얼리티에 대한 비판, 비정상적인 것, 상호텍스트[15]적이나 때때로 생경한 것, 텍스트의 최소한의 변형, 모던하고 풍자적인 것(패스티시[16]와 같은 '텅빈 패러디'는 포스트모던하고 비규범적인 것' 등으로 정의된다.

1970년대 이후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의된 패러디 개념은 메타픽션/상호텍스트적이고 희극적인 것, 복합적이고 희극적인 것 등으로 정의된다.[17]

이렇듯 시대별로 패러디의 개념은 다양했고 또 동시대라 하더라도 패러디를 정리하는 개념은 각각 달랐다.

2. 모방의 개념과 통일성

미술의 역사에서 자연은 조형미의 근원이 되며 동, 서양 모든 자연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이 미술의 과제로 되어 왔다. 그러나 미술의 역사 속에 변화, 발전하면서 다른 조형 사고와 표현 형식을 가지면서 지역과 민족마다 독특한 미술 문화를 형성해왔다.

미술에서 모방은 미술의 기원에 대한 여러 입장(학설) 중 하나이다. 창조설, 우희설, 장식설, 주술설(실용성), 노동설 등과 함께 모방

15) 패러디와 같이 어떤 의도 속에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도도 소멸된 형태로 그 속에서 모티브로 잠재해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16)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기존 작품의 모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패러디가 풍자적 충동 혹은 희극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반면 패스티시는 모방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며, 풍자나 희극적인 요소가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패러디와 다르다

17) 이나영(2001), 패러디광고의 창조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정보대학원.

설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대상을 닮게 표현해 내려는 의지 속에 형상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으로 표현의 한 형태를 말한다. 모방은 일반적으로 ~와 닮게, ~와 유사하게, ~처럼, 복사, 재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모방이라는 것에서 찾았던 참된 의미는, 모방하는 사람이 그의 모방행위를 통하여 스스로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사물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례와 크기, 색채 등이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물과 유사하게, 닮게, 재현해내게 된다. 즉 예술가는 어떤 대상에 공감을 느낌으로서 표현활동(모방)을 하게 되며, 또 감상자는 거기에 표현된 것을 받아들임(모방)으로써 어떻게든 모방의 대상에 다가간다.

미학상의 모방 개념의 첫 번째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으로 하는 고전적 이론인데, 이것은 '모사하는' 모방이다. 그러나 근세의 고전주의 이론은 자연 모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고대인의 모방'을 내세웠다. 이것은 '따라 본받는' 모방이다. 분명히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환유적으로 '고대인의 작품의 모방' 으로 이해하기 쉽다. 사실 그 전형적인 실천 형태가 아카데미에서의 고대 조각의 데생이다. 그러나 회화와 조각의 목적이 고대인의 작품 형태를 모사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인의 모방이 주장된 이유는 기본 원리로서의 자연 모방이 단순한 사실(寫實)을 의미하지 않고, 예술적인 '모사' 방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인의 모방이 목표하는 바는 고대인의 필법이나 나아가 자연 대상의 파악 방식을 습득하는 데 있었다. 그것이 '따라 본 받는' 모방인 까닭이다.

자연 모방은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며, 고대인의 모방은 방법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조합됨은 '모사하다' 와 '따라 본받다' 가

근저에서 서로 통함을 시사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방이란 말에서 표현되고 있다. 즉 '모(模)는 형(型)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다' '본뜨다' 이며, '방(倣)'은 말할 나위 없이 '따라 본받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8]

3.모방과 복제 그리고 창조

모방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복제와 구별하는 일이다. 어느 쪽도 모상 관계와 관여하며, 모사하는 것과 모사되는 것이 동등하다는 점에서도 양개념은 똑같다. 차이는 모방이 사람의 현상임에 대하여 복제는 사물의 현상이라는데 있다. 다만 처음부터 지적했듯이 모방에는 '사물이 사물을'이라는 형태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방과 복제는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경우(imitation diamond와 같은 사용방식)가 많다, 그러나 각각의 본질에서 구별한다면 모방에는 사람의 요인이 불가결하다. 모방과 복제의 차이는 회화에서 모사와 위조품의 차이를 생각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조품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작과 구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결과의 상사성(相似性)뿐이다. 이에 대해 모사는 기법의 습득을 위해 행해지는 훈련이며, 과정 자체가 문제이다. 완성된 타블로가 원작과 닮아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작과 닮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그리는 기법을 습득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작과 닮은 모사 자체가 아니라 모사를 행하는 사람의 기량 속에 남겨진 결과, 즉 어느 특정한 능력 · 기법이다.

18) 사사키 겡이치 저, 민주식 옮김 ,미학사전. 동문선, 2002, p.83

기법의 습득은 예술의 출발점이지 도착점은 아니다. 모방에 의하여 습득되는 것은 기껏해야 상투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것은 오히려 창조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몸에 익힌 수법이 그 이상의 것을 창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성은 단순한 우연성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성은 세세한 차이를 식별하는 섬세한 지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연히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방이 되풀이의 능력임과 동시에 그 내적 감성에서 보다 섬세한 인식능력을 가져다준다. 신체가 이념의 지평을 개척하는 것이다. 모방적인 학습이 창조로 통하는 완도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모방은 우리들을 창조의 문으로 이끌어 준다. 그 다음은 각자의 산출력의 문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습득된 수법에 얽매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사람은 본래 보잘 것 없는 창작력밖에 갖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19]

4. 현대 미술의 모방과 차용

현대 예술에서 모방 또는 차용의 방식은 빈번히 볼 수 있는 패턴이다. 패러디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가들이 역사의 재현을 위해 과거의 작품들을 발굴하여 시대에 맞게 모방하는 시도를 하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단절된 시간이 아니고 현재와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작가들에 따라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고 비판적 의식으

19) 사사키 겡이치 저, 민주식 옮김 ,미학사전. 동문선, 2002, p.85~90

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현실의 사실적 재현이라 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비판, 해체 의식이 담긴 작품이라 해서 높게 평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구성 작품에서 창조성과 사회적 현실문제의 반영이 어느 정도 미적으로 표현되었는지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사물화 현상의 단순한 모방은 예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새로움을 찾을 수 없어 옛것을 모방하는 창조적 생명력을 잃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작가들은 모방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먼저 장르의 해체를 꼽을 수 있다. 모더니즘이 평면의 세계를 못 벗어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평면에서 입체의 차원으로 전환시도를 한다. 설치미술의 형태가 그 중 하나이다. 음악, 연극, 미술의 장르를 종합한 퍼포먼스의 도입이라든가, 산업폐기물도 재료가 되어 표현의 극대화에 기여한다.[20]

인용과 차용은 단지 유사성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의 작품에 대한 향수어린 모방이 아니다. 이는 양식상의 대립이며, 유사성의 한가운데 상이성을 확립시키는 현대적 재기호화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패러디에 적합한 용법은 과거에는 패러디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모방이라 불리었던 것이다.[21]

5.현대의 패러디와 범주

현대의 패러디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의도의 범주로서,

---

20) 고경화,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학지사. 2003, p.163

21) 린다 허치언 지음, 김상복, 윤여복 공동옮김,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8, p.18~21

아이러니하고 장난스러운 것으로부터 경멸적이고 조롱조인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패러디는 모방의 한 형식이지만 항상 패러디된 작품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러닉한 전도에 의한 모방이다. 또한 패러디를 달리 정의한다면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으로서, 이는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을 강조하게 된다. 비평적 거리를 가진 확장된 반복이 현대적 패러디인 것이다. 패러디는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된다.

패러디의 기능은 종종 악의를 지닌 것으로, 손상을 주기 위한 풍자의 매개물로서 그 역할은 오늘날까지 몇몇 패러디의 형식에서 계속 수행되고 있다. 과거의 작품들은 자주 심미적 모델이 되며 현대작품으로의 개작은 우리 시대의 관습이다 관행에 대한 풍자적 조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패러디는 현대 자아 반영의 중요한 형식이다. 패러디는 사전적 정의에서 언급되는 조롱조의 모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작에 대한 경의를 간직한 채 한편으로는 장난스러운 전도로부터 경멸적이고 조롱조에 이르기까지 현대 패러디의 범주는 실로 광범위하다. 또한 패러디는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다.

현대 패러디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작품으로부터 비평적 거리를 둔다는 것이다. 그 거리가 패러디 작가의 창조성과 그 작품이 당시 시대를 향한 의도를 명확히 해준다.

패러디의 범주는 광범위하여 전체 장르에 관한 패러디, 한 시대에 관한 패러디, 특정 예술가에 대한 패러디, 개별 작품에 대한 패러디와 작품의 일부분에 관한 패러디, 그 예술가 전체 작품의 특정적 양식에 대한 패러디의 경우가 가능하다.[22)]

22) 린다 허치언 지음, 김상복, 윤여복 공동올김,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8, p.190~191

Ⅳ.패러디가 가지는 교육성

예술의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예술은 사람의 인성과 사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예술은 악영향을 준다. 최근 들어 영화, 연극, 문학 등에서 다뤄지는 선정성, 오락성, 폭력성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고 모방심리를 발동시켜 뜻밖의 사건을 도모하게 하는 사회적인 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으며, 유혹을 받을 경우 모방심리를 형성시켜 범죄에 빠져듦으로써 부도덕한 시민으로 전락된다. 반면 좋은 예술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감화를 주고 정서를 환기시킴으로써 바르고 건전한 사고를 형성시키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에 이바지하게 한다.[23)]

오늘날에도 명화의 모사는 의미 있는 교수법적 기능성을 지닐 수 있다. 모사된 작품과 원화를 비교해 보는 것은 관찰력을 높여주고 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복사한 작품에 대해 강한 우대감을 갖는다. 이것은 작품과 자기 스스로의 대화의 결과이다. 이 대화적인 방법을 통해 한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의 모방과 창조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의 차이를 두면서 찾을 때 무수히 많은 창조물을 기대할 수 있다.

---

23) 김정희,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p.239~240

1.교과서에 나타난 패러디 작품 분석

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패러디 관련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참고작품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과 제재,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을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중에서 패러디 관련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그 도판 내용이 미비하고 적절하지 못한 교과서인 두산과 대한 그리고 삶과 꿈 교과서를 제외한 5종 교과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2-1) 교과서 패러디 작품-교학사

영역		지도내용	패러디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
표현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을만한 것인가?	착시를 이용하여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마그리트와 브뤼겔의 작품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착시 현상을 활용한 재창조 된 표현이다.	■더 메이/해질 무렵 마그리트와 다리를 도는 브뤼겔
	영상 디자인	연상 매체를 디자인에 활용한다.	모델을 지점토로 제작하여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에 컴퓨터 화면에서 합성하였다. 패러디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단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단편 애니메이션 김인성/본다는 것은:Way of seeing
감상	미술 문화 유산 이해	미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한다.	세잔의 정물을 패러디하여 팝아트 양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금붕어가 있는 정물

표2-2) 교과서 패러디 작품-교학연구사

영역		지도내용	패러디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
감상	새로운 모색	현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이해한다.	이미 표현된 명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작품에서 이미지를 차용하고 새롭게 발	■워홀/르네상스 회화의 세부

			견하여 판화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2-3) 교과서 패러디 작품-금성출판사

영역		지도내용	패러디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
표현	창작의 즐거움	창의적인 발상-발상에서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알아보자.	정선의 <금강전도>를 레고 블록으로 검정과 노랑색만을 가지고 나타내었다. 제목에서도 방(倣)금강전도라고 하여 기존의 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매체와 시각의 변화를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탄생 하였다.	■황인기/방(倣)금강전도
감상	미술과 시대정신	시대에 따라서 미술가들의 정신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벨라스케스의 작품 <교황 인노켄타우스 10세의 초상>을 패러디하여 나타내었다. 원작품과 패러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베이컨/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켄타우스 10세의 초상' 습작

표2-4) 교과서 패러디 작품-천재교육

영역		지도내용	패러디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
표현	소묘와 채화의 방법으로	폭 넓은 채화의 특질과 경향성을 살피고 흥겨운 채색표현을 실험하고 체험	벨라스케스의 초상을 패러디. 인체 묘사를 통해 불안감, 도달할 수 없는 욕망, 얼룩진 역사의 기록이 갖는 힘 등 인간의 육체를 채집물로 취급하는 회화의 히스테리를 본다.	■베이컨/벨라스케스의 이노켄티우스 10세 초상 모작
	조각과 소조의 방법으로	입체 미술 영역에서 공간의 쓰임새와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조각과 소조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기	세잔의 정물화를 본떠 입체로 만들고 채색하였다.	■시걸/과일 병이 있는 정물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그래픽에 쓰이는 프로그램을 익히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기법을 개발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 재구성되어 표현 되고 있다.	■이바랄/합성된 모나리자

표2-5) 교과서 패러디 작품-시공사

영역		지도내용	패러디 관련 내용	작가 및 작품명
표현	미술품을 이용한 미술품	기존의 미술 작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미술품을 재창조할 수 있다.	렘브란트의 <놀란 눈의 자화상>과 자신의 얼굴의 사진을 합성하여 종이에 연필로 그려 넣은 패러디 표현이다. <밀로의 비너스>를 차용하여 기존의 인간의 이미지에 서랍을 만듦으로써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표현을 한다.	■모리무라 야스마사/표정연습 ■살바도르 달리/서랍이 있는 밀로의 비너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보고 지친 현대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상향을 그린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차용한 후 그 위에 편히 잠든 사람의 모습을 그려 넣고 있다. 단순히 명화를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노을(학생작품)/몽유도원도
			그림 속의 여러 화가 작품들이 숨겨져 있다. 세잔과 반고흐, 모네 루소의 작품, 그리고 작가(학생)자신의 그림을 사진을 합성하여 구성한 뒤 유화와 혼합재료로 재창조하여 나타내었다.	■박민하(학생작품)/다섯 화가의 방

이상 고등학교 교과서를 영역별, 패러디 관련 내용으로 나누고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았다.

미술수업에서 패러디의 활용을 통한 수업으로는 시공사의 <몽유도원도2000>(그림3-6)과 <다섯 화가의 방>(그림3-7)등 학생작품들로 예시된 것 말고는 표현에서의 새로움의 시각이라든지, 기존의 작품을 차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감상영역에서 보는 시각의 다양함, 그리고 현대미술에 또 다른 시각의 방법의 설명 도판으로 패러디된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미술 교과서의 패러디 작품들은 표현영역과 많이 연관되며,

시각의 다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설명은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차용과 패러디에 대한 설명과 지도 방법에 대한 제시는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미술에서의 창조라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의 모색으로의 패러디는 흐름과 사상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패러디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미술 수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겠다.

패러디를 미술수업에서 단순한 유명한 작가의 모사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미술사나 비평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활동 속에서의 패러디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묻어나오는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패러디의 의미를 확장하여 미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영화나 광고 등의 적용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패러디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24)]

미술에서의 패러디는 유명한 명화를 이용한다거나 대중매체를 이용하였다. 이는 미술교육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의 작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표현하는데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명화를 패러디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패러디를 활용한 수업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속에서 주체적인 비판적 시각을 유도해내고 개인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인물화 감상과 표현의 연계 수업으로 비평적 감상과 실기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4)성정란(2004). 중등미술교육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수업지도 방안연구. 한국교대

가.패러디 작품 감상

그림3-1)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LHOOQ(197×124cm, 모사품 위에 크레용, 1919)

뒤샹은 19세기에 무한한 힘으로 채워진 듯하고 불후의 명작으로 찬양되던 <모나리자>를 그 주춧대에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것(아이러니컬하게 굴절시킴)으로 만들었다. 그림 제목(엘. 아쉬. 오. 오. 퀴)을 빨리 읽으면, '엘라쇼도퀼(Elle a chaud au cul)'로 발음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의역하면, '그녀는 음탕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림3-2)벨라스케스 (Diego Velazquez, 1599-1660)의
인노켄티우스 10세 초상(140×120cm, 캔버스에 유채, 1650)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궁정의 서열상 상당히 높은 지위에 까지 오른 화가였다.

초상화를 잘 그렸고 그래서 왕의 가족과 신분이 높은 인물들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은 매우 사실적이며 인물이 지닌 위엄을 잘 표현하였다.

그림3-3)베이컨 (Bacon, Francis, 1909-1992)의
인노켄티우스 10세 초상(153×118cm, 캔버스에 유채, 1953)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은 두려움과 불안, 압박의 분위기를 자아

낸다.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피조물들은 연단의 기이하고 삭막한 무대 공간 위에서 홀로 관찰자를 향해 늘어져 있다.

베이컨은 지속적으로 '허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화폭에 담고자 시도한다. 이때 그는 자신이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현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상적인 그림에 대한 시도와 접근으로 간주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려진 베이컨의 대형 그림들이 던진 도발은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195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한 전시에서 공개되었던 벨라스케스의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연구에 대한 여러 변형들은 충격을 주었고,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분노를 일으켰다.

그림3-4)렘브란트 (Rembrandt Van Rijn, 1606-1669, 네덜란드)의 놀란 눈의 자화상(5.1×4.6cm, 에칭, 1630)

극적인 명암 효과와 감동적인 색채로 널리 알려진 렘브란트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가 1631년 암스테르담으로 진출하기 전 주로 역사, 성서, 신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이 시기 그는 에칭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연작으로 표현하거나 빛의 극적인 효과를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한데, 40여 년 간 유화, 드로잉, 에칭 등 다양한 기법으로 단순한 외형의 재현이 아닌 심층적인 내면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림3-5)모리무라 야스마사 (Yasumasa Morimura, 1951-)의
표정연습(25×20cm, 종이에 연필 · 사진합성, 1994)

모리무라는 이 작품에서처럼 기존 명화의 등장인물과 똑 같은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 인쇄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일본의 작가이다. 의상과 가발을 선택한 후 화장을 하고 명화 속의 인물과 똑같은 표정과 포즈를 취하는 작업 과정이 주된 것이며, 1989년 이루에는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형 캔버스에 직접 출력하는 등의 새로운 실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미술 수업에서 인물화 패러디 수업 지도 방안

<수업 지도안 ⅰ>

■단원설정의 이유

인물화는 우리의 생활 모습이나 삶이 담겨있는 그림이라하여 대부분 미술교과 속에서는 그동안 닮게 그리게 하는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그려져 왔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나 그리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기보다는 외형에 치중한 형태였다. 하지만 감상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독자적 미감으로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의 세련됨보다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기초적인 미술 지식을 결합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미술수업 속에서 이용하고자 한다. 과거 미술작품의 접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때 미술의 이해도 용이할 것이며 다양한 인물화의 패러디는 전통회화를 현대의 문화로 끌어 들여 봄으로써 회화의 재해석과 그에 따른 비평적인 안목과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습목표

첫째, 동양과 서양의 인물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둘째, 패러디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물화의 패러디를 통해 미술을 보는 안목과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다.

■수업준비

*학생의 선수 학습 능력
-동양과 서양의 인물화의 특징적 양식과 미적 표현에 대한 사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
*교사 및 학생의 사전 준비 사항
-교수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관련 사진 및 화보
-교단 선진화 기기 또는 참고 작품을 제시할 각종 장비 점검
-표현할 작품을 미리 선택하여 준비

■교수-학습 방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서양 인물화의 흐름과 각 시대별 인물화 양식의 특징 및 전체적인 흐름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동양과 서양의 인물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설명한다.
*인물화 작품을 하나 선택하고 복사하여 잡지나 신문, 광고지 등에서의 이미지나, 현대 회화의 도판을 이용하여 합성하거나, 그 위에 다른 이미지를 직접 그려 넣어 새롭게 재구성해 본다.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한 느낀 점을 서로 토론하며 발표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수업 시 유의사항

*인물화 작품 감상 시 전체적인 흐름을 나열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시대적 양식의 특징에 따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참고 작품은 화질이 깨끗한 것으로 준비한다.
*인물화를 패러디함에 있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이미지의 결합에서 오는 또 다른 이미지의 결과를 자신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본시 수업 지도안 Ⅰ(1,2차시)

제재	인물화의 현대적 패러디	대상	10학년
학습 목표	인물화 작품을 현대적 감각의 패러디 작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인물화 감상자료 및 선진기기	아크릴 등 채색재료, 참고작품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동기 유발	■동양과 서양 인물화 작품 감상 *동·서양의 인물화를 역사적, 특징별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시한다. *인물화를 이용하여 변용하고 패러디한 작품을 감상한다.	
전개	표현	■작품 제작 활동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패러디하기 위한 구상을 한다. *준비된 기존의 작품에 잡지나, 다른 그림의 그림, 사진 등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편집해 본다.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합성해 보고 콜라주 형식으로 제작하며,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이나 매직 등의 채색도구로 그려 나간다.	*잡지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의 재료 사용(표현할 작품을 미리 준비)
정리 및 평가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작품 감상문 쓰기 *작품을 완성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낀점을 발표해 보고 토론한다. *작품제작과 감상 및 토론 내용을 감상문으로 쓴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	*감상문 자료는 결과물 보다 과정에서의 느낀점, 보완점 등을 중점으로 발표·토론할 수 있게 한다.

■본시 수업 지도안 Ⅱ(3,4차시)

<table>
<tr><td>제재</td><td colspan="3">동서양 인물화의 감성적 패러디</td><td>대상</td><td>10학년</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5">동서양의 인물화 작품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개성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2">준비물</td><td colspan="3">교사</td><td colspan="2">학생</td></tr>
<tr><td colspan="3">인물화 감상자료 및 선진기기</td><td colspan="2">서양화 재료 또는 동양화 재료</td></tr>
<tr><td>단계</td><td>학습
내용</td><td colspan="3">교수-학습 활동</td><td>자료 및
유의사항</td></tr>
<tr><td>도입</td><td>동기
유발</td><td colspan="3">■동양과 서양 인물화 작품 감상

<윤두서(그림1-1)·렘브란트의
자화상(그림2-1)>감상
*동·서양의 인물화를 재료의 기법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자화상의 모델이 되어 작가의 심경을
이야기해본다.
<베이컨/벨라스케스의 이노켄티우스 10세
초상>감상(그림3-2,3-3)
*벨라스케스의 작품 의도를 파악해본다.</td><td rowspan="2">*표현할 작품을 설정하여 동양화재료와 서양화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표현한다.</td></tr>
<tr><td>전개</td><td>표현</td><td colspan="3">■작품 제작 활동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패러디하기 위한 구상을 한다.
*거울을 보며 의도된 자신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 넣는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td></tr>
<tr><td>정리
및
평가</td><td>감상
및
감상문
쓰기</td><td colspan="3">■작품 감상문 쓰기

*작품을 완성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낀점을 발표해 보고 토론한다.
*작품제작과 감상 및 토론 내용을 감상문으로 쓴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td><td>*감상문 자료는 결과물 보다 과정에서의 느낀점, 보완점, 재료의 설정 이유 등을 중점으로 발표·토론할 수 있게 한다.</td></tr>
</table>

<수업 지도안 ii>

■단원설정의 이유

작품의 감상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등장한 차용 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표현해 본다. 작품을 제작하기 전 자신의 작품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예술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기성 작품을 이용하여 또 다른 미술을 창조함으로써 사고의 응용력을 키운다.

■학습목표

첫째, 차용 미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차용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둘째, 기성의 미술 작품을 자신만의 새로운 미술품으로 재창조해 본다.

■수업준비

*학생의 선수 학습 능력
-차용의 개념과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교사 및 학생의 사전 준비 사항
-교수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관련 사진 및 화보
-교단 선진화 기기 또는 참고 작품을 제시할 각종 장비 점검
-표현할 작품을 미리 선택하여 준비

■교수-학습 방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흐름과 각 시대별 인물화양식의 특징 및 전체적인 흐름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인물화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설명한다.
*인물화의 여러 작품을 선택하여 한 화면에 인물들을 집약시켜 사진자료를 오려서 붙이거나 직접 그려 넣어 새롭게 재구성해 본다.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한 느낀 점을 서로 토론하며 발표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수업 시 유의사항

*수업 2~3주 전에 본시 수업을 예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보도록 하여 차용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화 그림을 3점 이상 준비하도록 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창의력 없이 기성 작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응용할 수 있는 기법 등을 다양한 예시 작품 설명을 통하여 제시해 준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참고 작품은 화질이 깨끗한 것으로 준비한다.
*인물화를 패러디함에 있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이미지의 결합에서 오는 또 다른 이미지의 결과를 자신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할 때는 어수선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본시 수업 지도안 Ⅲ

제재	인물화작품의 재구성	대상	10학년
학습 목표	인물화 작품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상황의 모습을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학생	
	인물화 감상자료 및 선진기기	채색재료, 참고작품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동기 유발	■학습목표 인식 *다양한 차용 미술 작품의 감상을 통해 다양한 표현 양식과 기법을 이해한다. *참고작품으로 <다섯 화가의 방>(그림3-7)과 작품에 응용된 반 고흐, 루소, 모네, 세잔의 작품을 살펴본다.	*여러 그림을 한 곳에 모아 놓아도 어색함이 없음을 설명한다.
전개	표현	■작품 제작 활동 *차용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기법 이해한다.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패러디하기 위한 구상을 한다. *기성 인물화 미술품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부분을 선택한다. *작품을 완성한 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내용을 정리한다.	*참고 그림과 표현재료와 용구를 준비한다.
정리 및 평가	감상 및 감상문 쓰기	■작품 감상문 쓰기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제작 과정에서 이용된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술품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작품제작과 감상 및 토론 내용을 감상문으로 쓴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	*감상문 자료는 결과물 보다 과정에서의 느낀점, 보완점 등을 중점으로 발표·토론할 수 있게 한다.

Ⅴ.결론

어떤 형식의 예술이든 그 중심은 인간이었다. 예술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사시대 이래 회화의 주요한 주제였다. 그 중에서도 존재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인간의 얼굴은 인체의 한 부분을 속하는 것 이외에, 인간의 삶과 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예술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 그림 속에서 일화적 주제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림을 읽을 수 있고 그 주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개인적, 사회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란 감정과 사고의 표현 방법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인물화에 담긴 조형적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표현 정신을 비교하여 인물화를 현대 미술에 응용함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모습까지도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미술과교육은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미술교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의 미술교육은 작품의 제작 및 표현활동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에게 점수가 더 부여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미술시간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교과가 되기도 한다.

미술을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면 요즘같이 자기 자신의 개성 표출과 욕구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는 이때, 학생들에게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자기

반성을 통한 정신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작품을 개성 있게 표현하여 창의적 사고를 도출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올바른 비판 자세를 갖으며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미술교육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를 돌아보며 현재와 과거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할 수 있다면 집단내의 발생 가능한 마찰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 표현이나 기능에 얽매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기능적 평가를 통해 정해진 답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주지교과를 만들 필요는 없다. 미술과 본연의 특징을 살려 창의성이 존중되고 올바른 감상태도를 길러 생활에 미적 감수성을 포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을 미술교육의 궁극적 목표라고 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 교수법이 필요하다.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미술을 발견하고 적용하며 환경을 미적으로 개선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그들의 삶과 문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술의 한 획이라 할 수 있는 인물화와 함께 동서양의 미술적 차이와 흐름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미술수업의 틀 속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패러디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패러디라는 현대적 장르를 통하여 학생들의 개성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업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미술이 서로를 어우르는 대화의 장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성을 반영하며 올바른 이해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고경화, 예술교육의 역사와 이론, 학지사, 2003.

김만희, 우리풍속화 백가지, 현암사, 2001.

김원용, 안휘준, 新版한국미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정희,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노부자. 학생미술작품의 자기이해 및 감상을 위한 교수방법. 한국교육학회.

린다 허치언, 김상복, 윤여복(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8.

미술도서편찬연구회, 미술인명 · 용어사전. 도서출판 우람, 1994.

사사키 겡이치, 민주식(역), 미학사전, 동문선, 2002.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재원, 1999.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임두빈, 한국미술사101장면, 가람기획, 1998.

임두빈, 한 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가람기획, 2003.

이성미 외 1인, 한국회화사 용어집, 다ᄒᆞ미디어, 2003.

전성수 외 3인, 함께 배우는 우리미술: 한국미술에 꼭꼭 숨어있는 창의력발굴하기, 예경, 2003.

피에르 프랑카스텔, 안-바롱 옥성(역), 미술과 사회, 민음사, 1998.

한국사전연구사,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한국미술교육의 사상과 역사, 예경, 2003.

교과서

고승혜 외 4인, 고등학교 미술, (주)두산, 2003.
김정희 외 2인, 고등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2003.
노영자 외 1인, 고등학교 미술, (주)교학사, 2002.
이윤구, 고등학교 미술, (주) 도서출판 삶과 꿈, 2003.
이현표 외 6인, 고등학교 미술, 대한교과서(주), 2002.
한운성 외 2인, 고등학교 미술, (주)금성출판사, 2002.
홍명섭 외 2인, 고등학교 미술, (주)천재교육, 2002.
홍선표 외 4인, 고등학교 미술, (주)시공사, 2002.

학위논문

성정란, 중등미술교육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수업지도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나영, 패러디광고의 창조성에 관한 연구: 모방광고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미성, 동·서양 초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한유경, 인물화 감상을 통한 수업지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ABSTRACT

The Study for Parody Education Plan Use Figure Paint for a Middle-Arts Class

- Focus at a First Year Student of High School -

Jeon, Hyo Jin
Dept. of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 art education is a process of an art that teach for a trainee can represent one's think or feel through the visual expression create figurative and develop. So, grow for art and emotion is the goal of that.

At this aim, art class is focusing to understanding art as base on expression and impression at present. Also, the today's art is developed for a various aspect using the borrowing or together with genre and format and media from the influence of pluralism, multi-culture, post-modernism and so on.

The goal of this thesis, grow the beauty value and interesting for impression of the work through the figure painting impression the important part of art genre - to make

positive and aggressive approach to impression field for trainee.

And insufficient express field is satisfied using the parody that figure painting impression and free parody express for search the new teaching methods. In addition to that can release from the emphasized originality at the established art lecture and proposed for application method for education that universally and original analysis to using from new creation of a technique consideration to borrow or exchange accomplished thing.

Herewith it is release the pressure that drawing well the paint for trainee.

A selection of the reference paint is concentrate to a textbook and research contents used by literature and data.

In this paper,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in a parody lecture using a figure painting is proposed and approach method of the art lecture as a new creation of a technique consideration that a guide original think and right art comprehension of the taking person. From this result, it can verify for an art lecture as wide human nature and sensibility of the taking person.

A figure impress class and express action using the parody are continue for understanding figure as the start of a picture and propose class method to grow the critical advanced consideration and right inter-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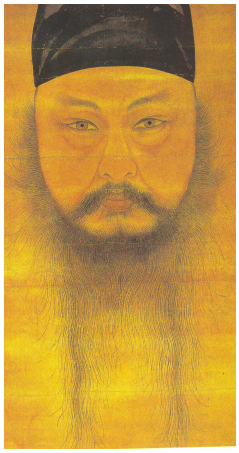

그림1-1)윤두서(尹斗緖, 1668-1715, 조선)의 자화상(38.5×20.5cm, 17세기 후반, 지본담채),

그림1-2)김명국(金明國, 1600-1662이후, 조선)의 달마도(82.3×57.5cm, 지본수묵)

그림1-3)김득신(金得臣, 1604-1684, 조선)의 파적도(22.5×27.1cm, 18세기, 지본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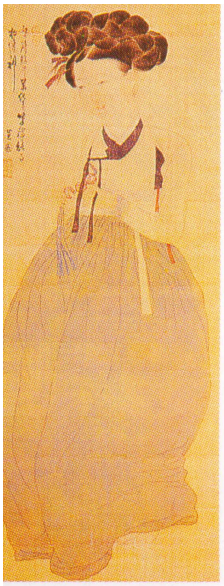

그림1-4)신윤복(申潤福, 1758-?, 조선)의 미인도(113.9×45.6cm, 조선후기, 혜원풍속화첩, 지본담채)

그림1-5)서구방(徐九方, 고려)의 수월관음도(227.9×125.8㎝, 1323, 비단에 채색)

그림2-1)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 네덜란드)의 자화상(59×51cm, 1669, 캔버스에 유채)

그림2-2)밀레(Jean Francois Millet, 1814-1875)의 이삭줍기(83.82×111.76cm, 1857, 캔버스에 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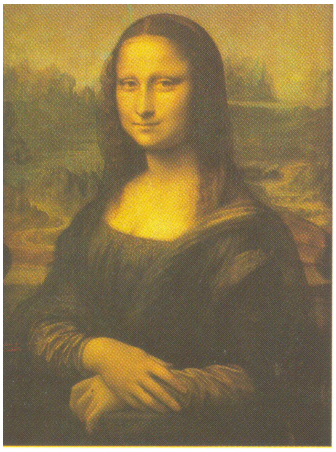

그림2-3)레오나르도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모나리자(77×53cm, 1503-1506, 페널화)

그림2-4)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예수 (81.5×49cm, 1280년 경, 목판에 템페라)

그림3-1)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LHOOQ(197×124cm, 1919, 모사품위에 크레용)

그림3-2)벨라스케스 (Diego Velazquez, 1599-1660)인노켄티우스 10세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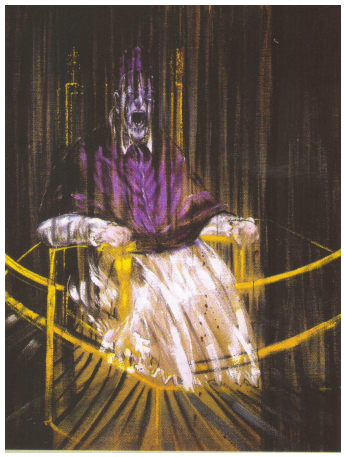

그림3-3)베이컨 (Bacon, Francis, 1909-1992) 인노켄티우스 10세 초상

그림3-4)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의 놀란 눈의 자화상 (5.1×4.6cm, 1630, 에칭)

그림3-5)모리무라 야스마사 (Yasumasa Morimura, 1951-)의 표정연습 (25×20cm, 1994, 종이에 연필,사진합성)

그림3-6)이노을(학생작품)의 몽유도원 2000(73×93cm, 2000, 캔버스에 유채)

그림3-7)박민하(학생작품)의 다섯화가의 방(39×51cm, 1999, 사진합성 · 유화 혼합재료)